

4. 신학다시하기(Doing Theology Anew)

A. 서론: 용어정리

- 신학하기(Doing Theology)란?==배움, 학문—혹은 “믿음”—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신학, 곧 신학 살아내기=> 그리스도인의 의미 (“예수[그리스도]를 살아내는 사람”). 그럼 신학 다시하기란? 신학하기의 구체적 표현. 신학하기를 내 것으로 적용. Q. 맘대로? 아무렇게나?
- 신학하기가 묻는 3 가지 질문: 근거, 일관성, 가치
 1. 근거(성서와 전통): 내 신학/신앙의 뿌리/전거, 정체성
 2. 일관성 (unity in diversity) => 성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, 가치들의 모음집. 이것을 내 것으로 엮을 수 있어야(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)=> (역지로) 만들어진, 그러나 (남에게도) 말되는 신학하기
 3. 가치 (신학하기의 출발 => “구원”이야기. 예. 병/고통에서 치유; 일확천금...).
 - 나는 이것을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? (Focus: uniqueness, 삶의 중심, 핵심)
 -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? 내 삶을 일관성 있게 경영하는가? 내 삶의 테두리, 경계선은? (Frame: comprehensiveness)
 -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인가? (missionary aspect: witnessing) Is it constructive or destructive?

B. 신학하기—어떻게 할 것인가?

1. 출발점(구원이야기). 먼저 자신의 “구원”의 경험을 상기하며, 그 구원/해방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.
 - 당시의 내 문제가 (“구원”을 필요로 했던 내 삶이)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, 그 문제(병, 죄)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될까? => 일시적이 아니고, 실존의 궁극적 문제였는가에 대한 물음. ‘시간이 해결해 준다’는 말의 의미는?
 - 당시의 답(“구원”의 내용)이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? (예. 물질의 풍요, 병고침)
 - 만일 당시의 문제가 지금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고, 혹은 그 답의 효력이 지금은 상실되었거나 무관하다면, 내 문제/그리고 답(“구원”)은 일시적 현상이었나? 어떤 의미에서 내 삶 속의 “구원”의 사건/경험인가? (끊임없는 자기성찰)
2. 나의 구체적인 “구원”의 경험이 성서/전통, 특별히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? (Christian Identity)
 - 근거는? => 내 경험과 일치하는 그 성서의 구절/이야기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인가? 혹은 핵심과 긴밀한 관련이 있나?
 - 그렇게 말하는/생각하는 이유는? (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)
 - 만일,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무관하다면, 나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인가?
3. 내 신학/신앙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/변화 시키는가? (한 두 마디로 요약하면...)
 - Life-Formation (#1-2 가 정체성 문제라면, #3 은 행동윤리, 삶의 설계)
 - 내 신학/신앙이 내 삶/일상생활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가?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이를 가져오는가? 예를 들어보라.
 -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, 나의 삶은? (내 신앙생활의 성적표는 가족/이웃/비기독교인의 몫!)